

# 4 테마 캠프 이렇게 준비하자

## 야외 전례 프로그램

신성균 이나시오 | 서울대교구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연구차장

### Taize : ♪ 주님을 찬양하라

#### 독서

집회서 42, 15-25

### Taize : ♪ 찬미하여라

#### 점화 예식

- 모닥불에서 개인의 초로 점화
- 동반자(교사)들이 초를 들고 모닥불 주변으로 입장.
- 모닥불의 불씨로부터 초에 불을 옮겨 붙인 후, 주변의 참가자들에게 불을 옮겨 붙여 준다.

### Taize : ♪ 어두운 맘 속에

#### 오지브와 기도(다함께)

바람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이시며 모든 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위대한 성령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저는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 중 한사람으로서 당신께 왔습니다.

나는 약하며 초라하고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속에서 걷게 해 주시고,

나의 눈으로 일몰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손으로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을 찬미하게 하시고

나의 귀를 예민하게 만드시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나를 현명하게 하시어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모든 나뭇잎과 바위틈에 숨겨 두신 교훈들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다만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당신께 청합니다.

제가 깨끗한 손과 올바른 시각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일몰이 질 때처럼 삶이 다할 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 영혼이 당신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 '미국 인디언의 기도와 시'에서 인용

### Taize : ♪ 오~ 주를 찬미하나이다

#### 복음

요한 1, 10-15

#### 강론(신부님) / 침묵(5분)

## Taize : ♪ 내 영혼이

### 조 이동

- ① 떼제 노래와 함께 각 조의 동반자를 따라 미리 준비된 조 나눔 자리로 이동한다.
- ② 조 나눔 자리에는 이콘과 성수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며, 조원들은 이콘을 중심으로 모여 앉는다.
- ③ 조 진행자의 “아멘”과 함께 떼제 노래를 멈추고 이콘을 바라보며 침묵! (2분)

### 파트너의 기도

- ① 참가자들을 원형으로 모여 앉는다.
- ② 각자의 여행 동반자(파트너)와 마주보고 앉는다. 이때 조용한 배경음악을 틀어 준다.
- ③ 파트너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는다.
- ④ 그런 다음 상대 파트너의 이마에 손을 댄다.
- ⑤ 그리고 참가자들이 상대 파트너를 위해 기도할 때 진행자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하느님, 우리가 당신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 ⑥ 계속해서 참가자들은 파트너의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는다. 그리고 두 손을 파트너의 눈에 댄다.

“하느님, 우리가 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 ⑦ 가만히 파트너의 눈 위에다 십자가를 긋는다. 그런 다음 두 손을 귀에다 댄다.

“하느님, 우리가 속삭이는 바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⑧ 귀에다 십자가를 긋는다. 한 손을 파트너의 왼쪽 어깨 위에 댄다.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 ⑨ 왼쪽 어깨 위에다 십자가를 긋는다.

- ⑩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⑪ 모두 끝나면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한다.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의 여행 동반자여, 하느님께 의지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앞장서 가서 이 체험의 일부가 되십시오.”

### 밤하늘을 보며

- ① 파트너의 기도가 끝나면 진행자는 조원들을 그대로 땅바닥에 눕도록 한다.
- ② 누울 때는 머리가 이콘과 초를 향하도록 하고, 그대로 하늘을 향해 눕는다.
- ③ 침묵 가운데 밤하늘의 별들을 주시한다.
- ④ 조용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고,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숨결을 느껴 본다.



### 성수 예식

그대가 나를 축복해 줄 때  
그대가 나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대가 나의 귀에 아름다움을 속삭여 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는 깜짝 놀랍니다.  
그대가 나의 어깨를 두드려 줄 때,  
보이지 않던 미래는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대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내 곁에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대의 이 생명수로  
난 새롭게 태어났으며,  
그대의 속삭임으로 내 영혼은 맑아졌으며,  
그대의 격려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  
내가 받았던 기쁨,  
내가 받았던 관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 다가갑니다.

#### <진행 사항>

- ① 전체 진행자가 조용한 가운데 위의 글을 읽는다.
- ② 가운데 있는 물을 찍어 다른 친구들 (두 명 정도)의 이마에 성호를 그어 준다. 대형은 자유롭게 한다.
- ③ 이때, 성호를 그어주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인정해 주는 말, 지지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등)을 해준다.  
예/ 사랑해, 너는 너무 예쁘다. 너는 천사다. 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 주의!! 조용히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배려한다.
- ④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면 사회자는 모두 자리에 앉게 한다.
- ⑤ 음악을 틀어 주고 잠시 묵상한다.
- ⑥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마친다.

※편집자 주) 2000년도 가톨릭 청소년 캠프 실기 연수에서 하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실행은 못하고 교재에만 실렸던 야외 전례 프로그램입니다.